



[뉴스]
尹, 부동산 정책 공약
“수도권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 공급”
02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기50111 독자센터 (02)721-9841

metroseoul.co.kr

6일 Market Index	
코스피	980.30 (-29.32)
코스닥	2920.53 (-33.44)
금리 (국고채 3년)	1.985 (+0.072)
환율 (원·달러)	1201.00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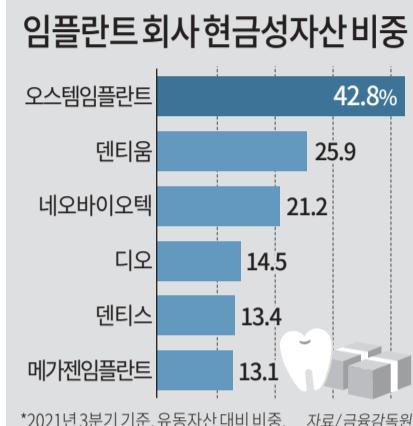
2022년 1월 7일 금요일

내부통제 소홀 ‘예견된 참사’… 단독 아닌 공범 가능성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

2014년 ‘횡령혐의’ 주식거래정지 지난해 8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부감사 인력 22명→11명 급감

유동자산比 현금성 자산 42.8%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해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제품개발, 글로벌 영업망 확장 등을 이유로 영업조직을 대폭 키운 반면, 재무·회계 관리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또 직원 한 명이 단기간에 18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출금한 점, 그만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존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단독범행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6일 경찰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알려진 직원 이 모씨가 경기도 파주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체포됐다. 이 건물은 지난 2016년부터 이 모씨가 소유하다 지난달 말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씨의 가족들은 “독자적 횡령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허점 파악해 범죄 계획”

지난 2014년에도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8월에는 2건의 공시 변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인적분할 형식의 회사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에 나섰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총 2400만원의



CES2022 삼성 ‘비스포크 홈’, 관람객 시선 집중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 부스를 열었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비스포크 홈 전시존을 찾아 다양한 가전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삼성전자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또 내부감사 인력도 2019년 초 22명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11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대주주 때부터 도덕적 해이나 거버넌스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던 회사다. 이런 회사의 허점을 파악해 범

죄를 계획했을 것”이라며 “12월 말 회계법인 감사를 받기 전에 돈을 빼서 쓰다가 결산 기간 전에 채워 넣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 공백기를 노린 악질 범행”이라고 말했다.

◆1880억대 횡령, 단독범행 가능한가?

회사 측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단기금융상품이 아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자사주 담보대출로 티사에 투자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다.

〈3면에 계속〉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대기업, 공정거래법 강화에 체질개선 분주 정몽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10% 정리

칼라일에 6100억 규모 매각
정의선 지분율 19.9%로 줄어



정의선 회장은 보유 중인 주식 873만2290주 가운데 123만2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

매로 처분했다. 매각 지분은 정몽구 명예회장 6.71%와 정의선 회장 3.29%를 합해 총 10%다. 정의선 회장은 기존 23.29%에서 19.9%로 줄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000원. 정의선 회장이 회수한 주식 매각대금은 2000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100억원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칼라일은 현대글로비스의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주요 주주는 정의선 회장(19.9%), 덴노르스케 아메리카린제 에이에스(11%), 칼라일(10%), 현대차(4.88%), 현대차정몽구

재단(4.46%) 순으로 변경됐다.

재계는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우군으로 분류되는 칼라일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2019년 칼라일이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하는 등 이규성 칼라일그룹 대표와 친분을 유지해왔다. 칼라일은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로 한국시장에서 20년 이상 투자활동을 펼쳐온 글로벌 투자회사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11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내 급식에 이어 물리보안(출입관리), 시설관리 등 계열사 사업을 외부에 전격 개방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주요 대기업들도 수의계약 비중을 줄이고, 경쟁입찰 방식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LG와 ‘OLED 동맹’ 청신호”

한종희 삼성부회장 CES 간담회 QD OLED TV 수량 확보하면 전시

삼성전자가 LG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OLED 패널 구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미 이전부터 LG에서 공급 부족이 심할 때 LG에서 패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OLED 패널 역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CES 혁신상을 받고도 QD OLED TV를 전시에서 제외한 이유로는 원하는 수량이 안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수량을 확보하면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拉斯베이거스(미국)=김재웅 기자 juk@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문대통령, 평택 소방관 순직 애도 “가슴 멘다”
- ▲ 김총리 “우리사회 노후 대비 너무 부족… 연금 통계 종합 관리”

- ▲ 이재명, 평택 소방관 순직에 오후 일정 취소… SNS로 추모
- ▲ “단일화적합도 安 43.5% 尹 32.7% … 단일화시 安 41.6% 李 33.7%”



- ▲ 이준석, 의총 출석·비공개 토론 요구에 “공개·무제한 토론 자신”
- ▲ 국회의장 “민생입법 먼저 다룰 것…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